

## 2030년 미래 국어과 교육의 방향 탐색

김중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제1저자)

박재현 상명대학교 국어교육과

옥현진 이화여자대학교 초등교육과(교신저자)



- I. 서론
- II. 선행 연구 검토
- III. 연구 방법
- IV. 연구 결과
- V. 결론 및 제언

## I. 서론

기원전 8세기경 고대 그리스 델포이(Δελφοί)에는 피티아(Πυθία)라는 여사제가 있어 신탁을 통해 미래를 보여 주었다고 한다. 이처럼 미래를 내다 보고 대비하고자 하는 욕망은 인류 역사 전반에 걸쳐 지속되어 온 것이겠으나, 최근 들어 ‘미래 담론’이 특히 더 주목을 받고 교육 분야에서도 중요한 화두로 다루어지는 것은 사회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고 그 파급효과가 전 방위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인 듯하다.

〈2017년 인구절벽보고서 “한국 지방 40%는 이미 붕괴되었다”〉(정용인, 2017.1.21.)라는 신문기사의 내용처럼 학령기 아동의 감소는 막연한 우려가 아니라 출생 인구 추이를 통해 과학적으로 예측 가능한 사안이며, 이미 인구절벽의 사회적 충격이 교육 분야를 비롯하여 사회 곳곳에서 상당한 수준의 진동으로 감지되고 있다. 더불어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의 발전으로 기계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신할 것이라는 환상과 공포가 공존하며(허재준, 2017; World Economic Forum, 2016), 환경 문제와 에너지 자원 문제가 부각되면서 기존 산업 패러다임에 대한 수정·폐기와 더불어 지속가능성을 전제한 새

로운 패러다임의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다(김호석, 2005).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살아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교육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일차적으로는 현재의 교육 시스템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진단과 함께 미래 교육에 대한 비전과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세계 곳곳에서는 역량을 중심으로 새로운 교육 비전을 정립하고 교육과정을 새롭게 재설계하며 관련 정책들을 다듬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예를 들어 Partnership for 21st Century Learning, 2015; Scott, 2015; World Economic Forum, 2015; OECD, 2017). 국내에서도 최근 비슷한 맥락에서 일련의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예를 들어 박재윤 외, 2010; 이근호 외, 2012; 이해영 외, 2011; 주형미 외, 2016; 최상덕 외, 2011).

국어교육 분야 역시 변화하는 세계의 흐름과 사회의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다음 세대가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국어교육 분야의 전문가 30인을 대상으로 2030년 미래 사회를 대비하고자 할 때 향후 국어교육에서 어떠한 변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한지 의견을 듣고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이를 토대로 마지막 장에서는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해 보려고 한다.

## II. 선행 연구 검토

### 1. 미래 교육 관련 연구 동향

미래 사회를 대비한 교육(이하 미래 교육)을 주제로 수행된 국내 연구는 미래 사회 메가트렌드<sup>1)</sup>가 무엇인지, 그 메가트렌드가 국내 교육에 어떠한 영

---

1) 메가트렌드(megatrend)는 미국의 미래학자인 John Naisbitt이 1982년에 저술한 책 제

향을 미칠 것인지, 그리고 그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 전략이 무엇인지 탐색하는 데 집중해 왔다. 2000년대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진행된 미래 연구는 한국 교육개발원이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같은 국책연구기관 및 정부 자문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박재윤 외, 2010; 이근호 외, 2012).

일례로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2007)의 ‘미래 교육의 비전과 전략’ 보고서에서는 저출산·고령화, 세계화, 사회·경제적 불평등, 과학기술의 첨단화, 직업과 생활양식의 다양화, 남북관계 등을 미래 사회 메가트렌드로 제시하고 이를 대비할 대응 방향과 전략을 수립하여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연구 기조는 2010년대에도 이어지는데,<sup>2)</sup> 그 예로 박재윤 외(2010), 이해영 외(2011), 이근호 외(2012), 주형미 외(2016) 등을 들 수 있다(〈표 1〉 참조).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미래 교육 관련 연구는 연구 목적, 초점, 방법 등 여러 면에서 상이하나 미래 한국 사회에 대한 예측과 교육의 방향에 대해서는 놀라울 만큼 일치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그 공통된 예측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구조의 변화이다. 이 연구들에서는 미래 한국 사회에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학령인구 및 생산인구의 감소가 두드러질 것이고, 이로 인해 사회 구조가 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둘째,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 변화이다. 인공지능(AI), 사물 인터넷(IoT), 빅 데이터 관련 산업으로 인한 4차 산업 혁명의 도래는 기존의 발전 속도보다 더 큰 기술의 혁명적 변화를 불러와 사회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경제 구조에 변화가 예측된다. 인구구조와 과학기술의 변화는 일자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 결국 사회·경제적 구조를 흔드는 동인이 될 것이다. 넷째, 국가 간 장벽이 낮아지고

---

목으로, 오늘날에는 사회 변화를 추동하는 거시적인 사회, 경제, 정치, 환경, 기술적 조류를 일컫는 말로 쓰이고 있다.

- 2) 미래 교육 전망과 관련하여 2010년대 이전 연구는 박재윤 외(2010)에, 2010년 이후의 연구는 이근호 외(2012) 및 주형미 외(2016)에 정리되어 있으나 분량의 제약상 본고에서는 일일이 열거하지 않았다.

〈표 1〉 주요 선행 연구의 국내 미래 메가트렌드 예측 및 교육 방향 제언

연구	미래 메가트렌드	교육 방향	
박재윤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출산 고령화</li> <li>• 사회·경제적 양극화</li> <li>• 글로벌화</li> <li>•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li> <li>• 정보통신 및 융합과학기술의 고도화</li> <li>• 통일 또는 통합된 한국사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맞춤형 교육/자기주도적 학습</li> <li>• 우수한 교사 양성</li> <li>• 다문화 및 세계화 교육</li> <li>• 삶의 질을 높이는 교육</li> <li>• 교육 시설의 첨단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성·개성 존중 프로그램</li> <li>• 교육의 개방성, 유연성 제고</li> <li>• 학습자에 대한 배려</li> <li>• 학교교육력 제고</li> </ul>
이혜영 외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출산, 고령화, 다문화 사회</li> <li>• 양극화와 교육 불평등</li> <li>• 지식기반 산업 비중 증대</li> <li>• 한국교육에 대한 글로벌 수요 증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의성, 핵심 역량,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 양성</li> <li>• 양적 성장에서 질적 발전으로 전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생 학습 체제 강화</li> <li>• 한국 교육의 글로벌 리더십 강화</li> </ul>
이근호 외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구구조의 변화</li> <li>• 과학·정보 통신 기술 발전</li> <li>• 경제 환경 변화</li> <li>• 환경·자원 문제</li> <li>• 지구촌 다문화 사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생 교육</li> <li>• 학생 중심의 개별화 교육</li> <li>• 사이버 학습</li> <li>• 정보윤리 교육</li> <li>• 직업역량 교육</li> <li>• 세계시민 교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 교육</li> <li>• 통합교과 교육</li> <li>• 인성 교육</li> <li>• 친환경 교육</li> <li>• 경험 중심 교육</li> </ul>
주형미 외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구구조의 변화</li> <li>• 지식 기반 사회의 심화</li> <li>• 과학·정보 기술의 발달</li> <li>• 경제 및 사회 구조의 변화</li> <li>• 환경 문제 해결/지속가능한 발전 추구</li> <li>• 생활 방식 및 가치관의 다양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별화 교육 강조</li> <li>• 다문화 교육 강화</li> <li>• 직업·진로 교육 강화</li> <li>• 지식 활용 교육 강화</li> <li>• 인성·감성 교육 강화</li> <li>• 디지털 기술 활용 강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형 중심 교수·학습 강조</li> <li>• 교육과정 다원화</li> <li>• 선택형 교과목 구성 확대</li> <li>• 교육 복지 기능 강화</li> <li>• 지역 사회 연계</li> <li>• 소규모 학교 운영</li> </ul>

교류가 늘어나면서 우리 사회는 더욱 글로벌화되고 다문화 사회가 도래할 것이다. 다섯째, 자원 및 환경 관련 이슈들이 더욱 부각될 것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압력이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위의 전망이 보내는 공통된 신호는 기존의 교육 시스템으로는 미래 사회를 준비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21세기 역량(21st century competencies/skills) 논의, 창의융합 교육, 직무 교육, 인성·감성 교육 등은 그러한 우려에 대한 교육계의 고민의 흔적으로 볼 수 있다.

## 2. 국어교육 분야의 미래 교육 관련 연구 경향

미래 사회 대비 교육 담론이 증가하면서 국어교육계 내에서도 미래를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학술적 논의가 있었다. 가장 먼저 주목할 것은 미래 사회에서 국어교육을 어떻게 재개념화할 것인가에 대한 메타 담론이다(김창원, 2009; 노명완, 2015). 국어교육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 주제는 그 자체로 새로운 것은 아니나, 미래 사회와 연계한 철학적 고찰이란 점에서 이들 연구는 주목할 만하다.

미래 교육과 관련하여 국어교육 분야에서 수행된 보다 실제적인 연구는 전통적 인쇄 기반 국어교육에서 디지털 및 미디어를 어떻게 수용하여 교육의 장면에 포섭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2007 개정 교육과정 이후 이와 관련된 담론이 본격적으로 확산되었으며, 구체적인 예로 매체 관련 교수·학습 방안 및 교과 간 융합 단위 개발에 관한 연구 성과를 들 수 있다(예를 들어 정현선 외, 2016; 정현선 외, 2015).

또 하나의 연구 경향은 역량(competencies)의 교육적 적용에 관한 것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역량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국어 교과에서는 이러한 역량 관련 담론을 국어교육 상황에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예를 들어 가은아, 2014; 박영민, 2014; 박재현, 2015; 서영진, 2015; 정혜승, 2014). 이들 연구에서는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기르기에 기존 국어교육의 체제가 충분하지 못하므로 국어교육의 틀이 학생들의 실제적 역량을 기르는 방향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어교육의 전개 양상은 큰 틀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일례로 언어 사용 기능(듣·말/읽/쓰), 문학, 문법의 3영역 체제는 수차례에 거친 교육과정 변화와 무관하게 유지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어교육의 3영역 체제가 국어교육의 항존적 특성으로 시대의 변화와 무관하게 지켜져 온 것으로 인식되나, 다른 한 편에서는 이러한 체제가 변화를 막는다고 지적한다.

우리 국어과 교육과정은 일종의 진리로서의 ‘국어’라는 개념(사실은 지극히 이데올로기적인 개념)을 설정하고 그 국어의 하위 영역으로 관련 학문에 따라 굳건히 ‘한 지붕 세 가족’을 지켜왔다. 사회적 요구 조사와 학습자 요구 조사 등을 해왔지만 실제로 그것이 교육과정에 크게 반영된 경우는 없었다고 본다. 그래서 교육 목표와 교육 내용이 교육과정이 바뀔에도 불구하고 크게 차이가 없었다. (….) 국어과 교육과정이 그 안정성 때문에 시대적 변화에 역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조 체계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임철성, 2011: 8).

위의 지적은 기존의 3영역 체계에 대한 문제의식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국어과 교육과정이 그 안정성 때문에 시대적 변화에 역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조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 이를 개선하여 보다 미래지향적인 논의를 본격적으로 해 나갈 필요가 있다. 비슷한 문제의식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미래 교과 교육 과제(주형미 외, 2016)에서는 미래 국어교육의 방향 및 과제를 <표 2>와 같이 제시한 바 있다.

<표 2> 국어과 교육의 변화 방향 및 과제(주형미 외, 2016: 486)

교과 교육 방향	교과 교육 실행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의사소통 상황에서 언어활동을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literacy) 강화 지향</li> <li>○ 창의적 융합 능력의 신장을 위해 국어 교과의 도구성·범용성을 바탕으로 교과 간 연계·융합의 선도적 역할 수행</li> <li>○ 사회의 변화·요구를 고려하여 대학 및 직무 관련 준비를 위한 교육 내용 및 기회 제공</li> <li>○ 의사소통 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디지털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교육 내용 및 방법의 체계화·상세화</li> <li>○ 글로벌(glocal) 시대를 대비하여 문화·언어 다양성을 지닌 학습자 양성에 기여하는 교육 내용 강화</li> <li>○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학습자를 양성하기 위한 인성과 감성 측면 교육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어과 역량의 재개념화 및 핵심개념, 문식성과의 개념검토</li> <li>- 미래 사회에서의 학습자의 언어 발달 연구</li> <li>- 학부 교육과정에 교과 간 연계 과목(content area reading, writing across curriculum, 교수 화법) 관련 이수화 방안 탐색</li> <li>- 직무 기반 의사소통 능력의 개념 정립 및 교육 내용 개발</li> <li>- 디지털 리터러시 관련 국어과 교육 내용 정련 및 교수 학습 개발(윤리적, 정의적 특성 포함)</li> <li>- 글로벌 로컬(glocal)시대 대비 언어 및 문화 다양성의 중요성 교육 방안</li> <li>- 언어의 본질, 언어의 사회문화적 특성에 대한 고찰 과정을 통해 언어 다양성에 대한 학습</li> <li>- 기본으로 돌아가는(back to basics) 문학 교육 및 문학을 통한 인문학적 소양 개발 방안 탐색</li> </ul>



다만 <표 2>에 제시된 내용은 국어과 워킹 그룹의 자문 의견을 종합·정리한 것으로 참여 인원이 적어(5명) 학계 전반의 충분한 의견 수렴으로 보기에는 제한적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더 추가적으로 국어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된 인식이 무엇인지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 III.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국어과의 미래 교육 방향 탐색을 위해 이 연구에서는 국어교육 전공자 30명을 대상으로 서면 조사를 실시하였다. 참여자는 모두 국어교육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 28명은 대학 교원이며 1명은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1명은 초등학교 교원이다. 전공 분야의 형평성 확보와 연구 타당도 제고를 위해 참여자 선정 시 세부 전공, 경력, 학교급(초등·중등), 성별, 지역을 고려하였다. 참여자에 대한 개괄적인 정보를 제시하면 <표 3>과 같다.

#### 2. 조사 도구

본 연구는 서면 조사의 형태로 시행되었다. 먼저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취지를 설명한 후, 2030년 미래 사회를 대비하여 국어과 교육에서 가장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세 가지 적고 그 이유를 작성하도록 하였다(<그림 1> 참조).

이 연구에서 2030년이라는 특정 시점을 제시한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였다. 우선 시점을 정하지 않을 경우 참여자마다 생각하는 미래 시점이 다를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둘째로, 2030년은 2017년 출생자들이 중

〈표 3〉 연구 참여자 정보

참여자 정보		인원 수	비율	참여자 정보		인원 수	비율
성별	남	19	63%	전공	화법	6	20%
	여	11	37%		독서	7	23%
연령	30대	7	23%		작문	5	17%
	40대	17	57%		문법	6	20%
	50대	6	20%		문학	6	20%
총 경력	10년 이하	10	33%	지역	수도권	14	47%
	11~20년	11	37%		충청권	5	17%
	20년 이상	9	30%		영남권	4	13%
직종	대학전임교원	28	93%		호남권	3	10%
	기타	2	7%		강원권	3	10%
학교급	초등	10	33%		국외	1	3%
	중등	20	67%				

1. 2030 미래 사회를 대비하여 국어과 교육에서 가장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을 3가지 적으시고, 그 이유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변화가 필요한 부분 1:

〈그림 1〉 서면 질문지(일부)

학교에 들어가는 시기로(그런 점에서 2030년 중학교 입학생의 숫자는 이미 결정된 셈이다.), 가시권에 있는 미래인 만큼 보다 실제적이고 시급한 사안을 중

심으로 의견을 수렴하기에 유리하다고 보았다.

### 3. 자료 분석 방법

서면 조사는 이메일로 실시되었다. 전문가들은 2030년 미래 사회를 대비하여 국어교육에서 가장 우선하여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3가지 주제를 선정하여 먼저 제목을 적고 그 각각에 대해 추가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30명으로부터 3개씩 총 90개의 주제 수집).

참여자들로부터 수집한 텍스트 자료에 대해 연구자 3인이 NVIVO 11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개별 코딩(coding)을 한 후, 논의를 통해 이를 재코딩하며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90개의 주제는 크게 다섯 범주(교육과정, 교과서, 교수·학습, 평가, 교사 전문성)로 구분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연구자들은 다시 공동으로 코딩하며 하위 노드(node)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공동의 숙고 과정을 통해 응답 내용에 대한 주관적 해석을 최소화하며 자료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 IV. 연구 결과

### 1. 전문가 의견 개관

앞서 언급한 대로 참여자들의 의견은 크게 다섯 범주로 구분된다. <표 4>는 전문가들이 작성한 내용을 주제별로 범주화한 뒤 빈도를 분석한 것이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언급한 주제는 교육과정 변화 필요성에 관한 것이었다. 총 90건의 응답 중 48건(53%)을 차지한 이 응답에서 전문가들은 국어 영역 체계의 변화, 교육과정 성취기준 진술 방

〈표 4〉 2030년 국어교육 방향에 대한 전문가 언급 내용 예시

분야	전문가 언급 내용(예시)	빈도(%)
교육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핵심 역량을 신장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국어교육의 내용 영역 체계 및 성취기준 요소를 재배열</li> <li>• 국어과 내부 영역 간 공조 체계 확립 및 영역 통합</li> <li>• 디지털 기반 의사소통에 대한 교육 내용의 증가</li> <li>• 통일 시대 대비 남북한 국어교육의 통합 가능성 타진</li> <li>• 인문 교양 교육의 성격 강화</li> <li>• 모국어에 대한 정의적 영역(애착, 감정, 사랑, 소중함, 감사함 등) 교육 강화</li> <li>• 소수자(다문화, 북한이탈주민, 기초학력 미달, 장애인, 저소득층 등)를 위한 맞춤형 국어교육 내용의 개발 및 실행</li> <li>• 국어과 교육과정의 안정적 개발 주체 선정(KICE 주도)</li> </ul>	48 (53%)
교과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절적인 국어사용 기능 중심으로 개발되고 별로 재미없는 국어 교과서의 변화</li> <li>• 교과서의 검정 폐지, 인정 및 자유발행제로의 변화</li> <li>• 디지털 국어 교과서 개발</li> <li>• 교과서 중심 국어교육에서 벗어나기, 시중의 좋은 책이나 매체 자료를 다양하게 활용하는 국어교육 실행</li> <li>• 학생의 삶과 연계된 실제적 교과서 개발</li> <li>• 국어 공동체 안에서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수준 높은 텍스트의 수집, 공유, 활용</li> </ul>	8 (9%)
교수·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어과 교수·학습 방법 다양화</li> <li>• 수업 방식 변화(협력적 토의·토론 수업)</li> <li>• 가정과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국어교육 실행</li> <li>• 학생을 의사소통의 주체로 인정하는 인식 확산</li> <li>• 디지털 매체 환경을 반영한 국어교육 실행</li> </ul>	10 (11%)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표, 내용에 부합하는 다양한 평가 도구의 개발 및 평가 도구의 정교화</li> <li>• 학습자의 국어 능력에 대한 새로운 평가 방법</li> <li>• 교차원의 국어적 사고를 신장시키는 평가 방식의 적용</li> </ul>	11 (12%)
교사 전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어 교사 양성 과정과 임용 시험의 개선</li> <li>• 국어과 사범대학 교육과정의 세분화 및 전문화</li> <li>• 지역사회 학교와의 연대를 통한 사범대 교육과정의 현실화</li> </ul>	13 (14%)

식의 변화와 같은 교육과정 문서상의 변화 외에도 교육과정 목표의 변화, 교육과정 개발 주체의 안정화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로 높은 빈도를 보인 주제는 교사 전문성으로 모두 13건(14%)이었다. 이 주제 내에서 전문가들은 교사 선발 제도 변화를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하였으며, 아울러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교육과정을 포함한 교사 양성 프로그램 전반의 개선, 사립학교를 포함한 교원 수급 제도의 변화 등을 중요한 주제로 제시하였다.

세 번째는 평가 개선에 관한 것이었다(11건, 12%). 수능을 비롯한 현재의 일방향적·수직적 평가 체계 하에서는 국어교육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여러 노력이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평가 방식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점, 평가 시스템의 변화는 국어교육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해야 한다는 점, 고차원적 사고를 평가하고 신장시킬 수 있는 평가가 필요하다라는 점 등이 주된 의견으로 제시되었다.

네 번째로, 교수·학습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은 모두 10건(11%)이었다. 구체적으로 교수·학습의 다양화, 학생을 존중하는 수업, 디지털 매체 기반 수업 등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은 교과서의 변화에 대해 언급하였다. 교과서 관련 주제는 총 8건으로 전체 응답 주제 중 9%를 차지하였으며 현재의 교과서 검정 체제, 교과서 판형 및 내용 등의 방식이 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하에서는 앞서 언급한 빈도 순서에 따라 각 주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해 보았다.

## 2. 주제별 전문가 의견 분석<sup>3)</sup>

### 1) 교육과정

교육과정과 관련한 의견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제시되었다. 먼저 미래 가치를 포섭한 교육과정이 설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31건, 영역 통합적인 교육과정 체계의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13건, 교육과정 개발 체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7건이었다. 이를 종합하자면 국어교육의 설계도라고 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미래 가치를 담보해야 하고, 그 구조가 현재보다

---

3) 이 절에서 제시하는 전문가 의견 빈도는 앞 절 <표 4>의 빈도와 차이가 있다. 이는 빈도 측정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표 4>의 빈도는 전문가마다 3개씩 제시한 내용을 제목 수준(총 90개)에서 범주화하여 나타낸 것이라면, 이 절에서 말하는 빈도는 각 전문가의 상세 진술을 NVIVO로 분석하여 하위 노트(node)로 코드화한 것이다.

영역 통합적이어야 하며, 교육과정 개발이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정리된다.

우선, 교육과정이 미래 가치를 포섭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의 경우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미래 가치는 다양하게 나타났다. 그중 실제적인 역량을 길러주는 교육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9건), 매체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는 교육과정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9건)의 빈도가 가장 높았다. 이와 관련된 전문가 의견 일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sup>4)</sup>

- C1: 기존의 전통적인 학문 중심, 지식 중심의 성격에서 벗어나, 사회의 요구와 핵심 역량의 대두에 따른 국어교육의 전면적인 개편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특히 2015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6개의 핵심 역량을 교과 역량으로 일부 재편하여 성격과 목표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반영하는 데 그치고 있음.
- S1: 디지털·인터넷을 통한 무한 정보 시대에 정보의 비판적 수용과 활용 능력이 매우 중요하게 대두됨.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함께 매체의 생산과 수용의 변화 정도가 요동치고 있음. 이러한 맥락에서 기존의 텍스트 중심의 이해 표현 교육에서 더 나아가서 복합양식 문식성 교육에 대한 강화가 요구됨.

뒤이어 인문학적 소양과 인성에 대한 교육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의견(4건), 통일시대를 대비한 국어교육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의견(3건), 다문화 및 글로벌 학습자를 고려한 국어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3건), 모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3건)이 있었다. 그중 일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K1: 미래 사회에는 인공지능, 기계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함을 생각할 때, 인간다움을 회복하고 증진하는 국어교육이 강조되어야 한다.

---

4) 이하 각 전문가는 성(姓)의 첫 영문자와 일련번호로 구분하였으며, 의견 원문을 인용한 경우 오타자 수정과 같은 최소한의 수정 외에는 원문을 그대로 인용하려고 하였다.

- J1: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국어교육의 노력이 필요하다. 남북한 사회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 언어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국어교육에서 그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철학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초 자료 등을 마련해야 한다.
- K2: 이제 국어과 교육은 단일 양식 언어 상황에서의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유창성이나, 문법에서의 규범성은 당연히 갖출 것을 전제하고, 그 위에 혹은 그와 동시에 문화 인식, 다중문식성, 민주시민의식, 글로벌 의식을 함께 갖추어 나가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둘째, 전문가들은 분절적인 현행 국어 교육과정 영역 체제를 개편하고 이에 맞게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재배열·재진술할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현행 언어사용기능, 문법, 문학의 3영역 체제는 학문 중심적이고 분절적이어서 학생들의 국어 능력 신장에 방해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된 의견이었다(10건).

- J2: 지금과 같이 분화된 5영역 체제로는 미래 사회에서 필요한 융합적 인재를 길러 내는 데 한계가 있다. 현재의 체제는 지나치게 학문 체계를 중심으로 분화되어 있으며, 이러한 학문 체계는 전통적인 것으로서 의미가 없지는 않으나, 미래 사회의 학문 체계라고는 볼 수 없다.
- K1: 현행 국어교육은 화법, 작문, 독서, 문법, 문학교육이 별개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문학 및 비문학 텍스트를 중심으로 한 영역 통합적 국어교육이 필요하다. 인간의 국어생활이 주로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미래 사회에는 통합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더욱 중요해진다는 점에서 국어교육 또한 개별적 국어교육에서 벗어나 통합적 국어교육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 P1: 타 교과와 융합을 시도하기 전에 국어과 내부 영역 간 공조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공조의 방향은 학습자의 역량 신장이다. 예를 들면, 설득적 의사소통 역량을 신장하기 위해 '읽기'에서 '설득적 텍스트에 대한 이해 역량'을 기르고, '쓰기'에서 '설득 텍스트의 내용 구성 역량'을 기르고, '듣기·말하기'에

서 ‘설득 텍스트의 구두 전달 역량’을 기르는 식으로 상호 공조해야 한다.

셋째, 교육과정 개발 체제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였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에 대한 기초 연구가 수립되어야 하며(4건), 교육과정 개발 주체가 독립적으로 교육과정의 개발·개정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2건)이 있었다.

- M1: 국어교육의 내용이 언어·심리·사회성 발달 측면에서 체계적인 연구에 기반해 있지 않고, 수직적·수평적 위계 관계에도 정합성이 부족함. 이는 관련 연구 부족으로 인한 학문적 미성숙 상태를 반영한 것으로, 단기간에 체계화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언어 매체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면서 국어교육 내용의 체계화 및 정편을 위한 학계와 현장의 지속적인 연구 실천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P2: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기간이 너무 짧다. 현재 모든 교과가 비슷하지만, 교육 내용이 비교적 안정되어 있는 교과는 어려움이 적지만, 다양한 관점, 다양한 요구가 현실적인 힘으로 작용하는 국어교육에서는 큰 어려움으로 다가온다. 좀 더 장기적인 연구, 토론, 논의, 설득, 의견 수렴 등등의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
- K2: 총론의 변화, 정권의 변화에 따라 근거를 찾기 어려운 개정을 일삼는 역사를 이제 그만 끝내야 할 때가 되었다. 독자적인 국어과 교육과정 연구·개정·평가 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었지만, 현실적으로 그러한 기관을 독자적으로 설립·운영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교육과정본부에 독립성이 충분히 보장된 각 교과 교육과정 연구팀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 2) 교사 전문성

국어교사의 전문성 또는 교사 역량 강화에 대한 의견 빈도는 두 번째(13건)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향후 우리 사회가 더욱 다변화되고 교육 분권화



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결국 교육의 성패는 개별 교사의 역량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L2: 교육과정이 바뀌어도 교사가 그것을 정말로 제대로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렇게 파악한 뒤, 실제로 학생들에게 변화된 내용을 가르쳐서 학생들의 삶에 내재화되어 행동으로 변화시키고, 학생의 생각과 행동의 변화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다시 말하면 교육과정의 최종 이해자인 교사의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교사 전문성 강화와 관련하여 전문가들의 초점은 일차적으로 교원선발제도 변화에 맞추어졌다. 현행 선발제도로는 역량 있는 교사를 선발하기에 한계가 있고 교원양성기관의 교육과정 역시 임용시험을 대비하여 파행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 P2: 교육의 주체는 국어교사이므로 국어교육의 어떤 변화를 기대한다면 국어교사의 양성 및 선발을 새롭게 개선해야 한다. 현재 대학 국어교육과에서는 임용시험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어쩔 수 없이 시험에 나오는 것을 가르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국어교사를 변화시키려면 양성 체제 변화를 꾀해야 하는데,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선발 시험의 체제를 바꾸는 것이다. 국어교사로 임용되면 곧바로 국어 수업도 하고 평가 문항도 개발하고 교수·학습 자료도 제작해야 하는데, 이러한 것은 선발 시험에 나오지 않으니 양성 과정에서 제대로 배우지 않는다.
- S4: 현재와 같이 필답 고사 중심의 임용고시는 훌륭한 ‘국어 교사’를 확보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학생들의 인성에 해로운 교사를 선발할 가능성이 높음.

그 대안으로서 ‘교원 양성 기관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여 정상적인 대학 교육을 통해 교사를 양성하고 부적격자를 제외한 대다수의 교원이 임용 기

회를 가지도록 하는'(M1) 방안, 그리고 '사립학교의 교사 채용도 국가 수준에서 통제'(K3)하는 방안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아울러 중등의 경우 교원 양성 경로가 다양한 탓에 전문성이 부족한 프로그램을 통해 배출되는 예비 교사가 많은 현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R1)도 제시되었다.

이상의 의견은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해 본질적인 요소이기는 하나 국어과 내에서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쉽지 않은 성질의 것이다. 반면 아래와 같은 지적은 국어과 내의 공론화를 통해 향후 검토해 볼 수 있는 의견이라고 판단된다.

- P1: 현재 기본이수과목은 과도하게 내용학에 편중되어 있다. 미래 사회의 국어교사에게 필요한 과목으로 교원양성기관의 기본이수과목을 변경해야 한다. 개편안으로는 이해교육론, 표현교육론 이원체계를, 교육과정을 그대로 반영하여 독서교육론, 화법교육론, 작문교육론 삼원체계로 설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 3) 교과서

교과서와 관련해서는 교과서의 구성 및 활용 방식에 대한 의견이 9건, 교과서 개발 제도의 유연화에 대한 의견이 5건, 학습자의 삶과 연계된 교과서 개발에 대한 의견이 4건이었다. 교과서 개발 및 검정과 관련된 제도적 차원의 문제부터, 디지털 교과서 등 형태 차원과 실제 언어 자료의 활용과 같은 언어 자료 차원의 논의, 학습자의 삶과 연계되어야 한다는 교과서의 가치 지향에 대한 사항들이 주로 언급되었다. 이러한 논의는 현행 국어 교과서 정책의 변화와 현장의 교과서 활용 방식에 대한 문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인데 전문가들의 언급 내용에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의 단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교과서 구성 및 활용 방식에 대한 의견으로서 구체적으로 실제 언어 자료의 사용, 교과서 형태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이 중 교과서의 구성 방식에 대한 의견으로 분절적 방식이 아니라 통합적 방식을 지

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4건이나 되었다. 특히 분절적 기능 중심의 구성이나 제재의 부분적 사용 등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 L1: 선택형 혹은 단답형 사고가 아니라 긴 텍스트를 읽고 비평적 견해를 주고 받고 그것을 바탕으로 쓰고 하는 고등사고 중심의 선 굵은 국어교육이 되었으면.
- Y1: 분절적인 기능 중심으로 교과서를 개발하기보다는 미국의 교과서처럼 제재 중심으로 개발하되, 교육과정이 요구하는 국어 능력을 해당 제재를 통해 교사가 수업을 통해 달성하도록 변화시켜야 한다.

또한 교과서 중심의 닫힌 교재관에서 벗어나 다양한 실제 언어 자료를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이는 교재로 다룰 언어 자료 차원의 논의로서 교실 내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 수업이 아니라 다양한 실제 언어 자료를 활용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자료를 교사가 자율적으로 직접 재구성해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더불어 국어교육 공동체 차원에서 교재로 활용할 질 높은 언어 자료를 수집하여 공유하는 작업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 P3: 교과서를 벗어나 다양한 자료나 방법으로 국어 수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교재를 다각화하는 것이다. 교과서 중심의 닫힌 교재관에서 벗어나 국어 수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교재화하여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K2: 교실의 상황에 따라 교사가 자유롭게 읽을 책과 듣기, 말하기, 쓰기, 문법 교육에 필요한 자료들을 선별하고 조직하여 가르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N1: ‘교육적으로 입을 만한, 유의미한, 좋은 글’을 국어 교과에서, 국어 교과의 논리로 발굴하여 축적하고 공유하고, 이를 국어 교실 안에 유의미한 경험의 형태로 변환,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는 지극히 국어 교과적이면서도 국어

교과서의 특수성, 전문성을 드러내는 작업이라 생각한다.

이와 더불어 교과서의 형태 변화를 촉구하는 의견도 있었다. 서책 방식을 보완할 디지털 방식의 교과서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으며, 증강 현실이나 가상현실 기술의 활용에 대한 의견까지 제시되었다. 기존의 서책이 다분히 읽기 위주의 교육에 용이하였다면 디지털 기술의 적용을 통해 듣기, 말하기, 쓰기 수업에서도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 P3: 서책형 교과서 중심에서 벗어나 디지털 교과서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할 것이다. 이때 디지털 교과서는 서책형 교과서의 대체 교재가 아니라 보완재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분담하여 학습 내용이나 방법, 또는 학습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온라인 시스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교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중략)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국어 수업은 교과서 중심의 교실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국어 수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인 교재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이 국어교육의 교재가 되기 위해서는 협소한 교재관(목표, 내용, 방법이 포함된 물리적 실체)에서 벗어나야 한다.

둘째, 교과서 개발 제도의 유연화에 관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주된 의견은 교과서의 획일화와 표준화를 유도하는 현행 검정 제도에서 개별화와 다양화를 추구하는 자유발행제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EBS 교재가 법정 수업 시간에 교과서를 대체하고 있는 위법적 현실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 M1: 검정 제도나 인정 제도에서 자유발행제로 전환하여야 함. 이는 교원의 전문성,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디지털 교수 학습 환경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 현행 교과서 제도는 다양한 학습자 요구나 교육 현장의 요구를 수용하기에 지나치게 경직된 구조임.

- R1: 교과서 검정 제도를 통해 표준화를 강하게 요구한다. 그러다 보니 교과서와 교수·학습의 다양성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표준화와 다양화가 선순환될 수 있는 수준으로 국가 주도성이 완화될 필요가 있다.
- K2: 장기적으로 국어 교과는 국가가 검정의 권한을 가지고 통제하는 교과서는 사용하지 않는 형태의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
- P2: 교과서 검정 과정을 거치지 않은 EBS 교재가 검정을 거친 교과서를 대체하고 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다는 말인가? 굳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교과서를 개발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셋째, 교과서가 학습자의 삶과 실제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는 교과서 개발, 활용, 구성과 같은 외적 측면보다는 교과서에서 다루는 내용 및 주제가 학생들의 삶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둔 의견이라고 하겠다. 의견을 종합해 보면 실제적인 교과서란 실세계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하고 학습자의 수준에 맞아야 하며 동기를 유발할 수 있어야 하고 학습자의 삶에 전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 J3: 교육과정이 바뀌어도 교과서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면 교실은 바뀌지 않음.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도식적이고 피상적으로 반영하는 데 급급한 교과서로는 학생에게 매력적인 자료가 될 수 없음. 학생들에게 문제의식을 보여 주고 토론의 의도를 불러일으키는, 삶과 밀착된 교과서 개발이 시급함.
- Y1: 교과서의 제재를 학습자의 실제적인 삶과 연계시켜 보다 흥미로우면서도 의미 있는 학습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J1: 국어교육은 그간 민족, 국가, 성 등의 거시 담론과 관련된 교육 내용을 제 공한 측면이 강하다. 하지만 학습자의 성장이 개인의 일상이나 내면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되는 것이라면 개인의 일상, 소시민의 생활 등과 관련된 미시 담론을 국어교육의 교육 내용으로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략) 또한 언어 자료에 대한 수용과 관련하여서도 기존 담론의 주류적 이해보다는 학습자의 다양하고 개별화된 반응 및 그 조정 등이 중심에 놓여야 한다.

#### 4) 교수·학습

교수·학습과 관련해서는 실제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언급이 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와 더불어 교수·학습 방법의 다양화에 대한 요구가 5건, 역량 중심의 교수·학습 지향에 대한 의견이 3건이었다.

우선, 교수·학습의 실제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의 경우 학습자를 소통 주체로 인식하고 학습자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해야 하며 학습자의 체험을 중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 S2: 사회의 변화와 함께 학습자의 변화도 살펴 다양한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교수·학습 방법이 개발되고 교수·학습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선택·적용되어야 한다.
- J3: 학생을 단지 지식, 기능, 태도 측면에서 교육이 필요한 '학습자'로만 보지 말고, 삶 속에서 언어로 소통하는 주체로 인정하는 인식론적 전환이 필요함. 전자의 관점만 지향할 경우 국어과 교육은 학교 안 교수·학습 공간에만 존재하는 교과목 중 하나로 화석화될 수 있음. 학생의 소통하고자 하는 '의도'를 살리는 교육을 기획하려면 먼저 학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전향적으로 바뀌어야 함.
- J2: 학습자 체험 중심 국어과 교육에 대한 연구와 실행이 충분하지 않음. 국어 교육의 영역 체계별로 학습자의 체험 중심, 학습자의 역량 중심 교육을 실행할 수 있는 이론의 설계와 실행이 필요함.

이와 더불어 학습자 주변 환경과 공조하는 체제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 L1: 학생, 학부모, 교사, 주변인 등 국어사용 상황에 개입하는 사람들의 국어 역량의 지속적 개발이 필요함. 교사는 열심히 국어교육을 지도하지만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국어교육의 실태는 매우 절망적임.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나

오는 언어는 국어 파괴적인 내용이 많음. 학교가 아닌 가정, 사회에서의 국어 사용의 필요성 공감에 무척 중요함.

둘째로, 교사 강의 중심의 교수·학습 방법을 탈피하여 학습자가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강조한 의견도 제시되었다.

- J1: 앞으로의 국어 수업은 체험 중심, 문제 중심(PBL 등), 프로젝트 중심, 학습자 중심(토의·토론 중심), 블렌디드 러닝 등이 주류를 이루어야 한다.
- P1: 집단 지성은 결국 토의와 토론을 통해 길러지고 발현될 수 있으므로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의 협력적 토의·토론 수업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토의·토론 수업은 면대면 현실 공간에서만뿐만 아니라 증강 현실이나 온라인 원격 시스템을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S1: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교육을 시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교실에서는 교사 중심의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교육 내용이 변화하면 교육 방법이 변화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국어교육에서 교육 방법을 다각화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셋째, 교수·학습 방법이 역량을 중심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교육의 내용뿐 아니라 교수·학습 방법 차원에서도 학습자의 실제적인 역량을 신장하는 데 중점을 두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K1: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국어과 핵심 역량 함양에 적합한 국어교육이 될 수 있도록 목표, 내용, 교수·학습 방법, 평가 등이 변화되어야 한다.
- C1: 기존의 전통적인 학문 중심, 지식 중심의 성격에서 벗어나, 사회의 요구와 핵심 역량의 대두에 따른 국어교육의 전면적인 개편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향후 실제 교육 내용과 방법 등에서 역량의 관점에 기반한 새로운 변화가 요청됨.

## 5) 평가

평가와 관련해서는 크게 교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평가와 대학 입시 제도로 의견이 묶였는데, 전자에 대한 것이 9건이고 후자에 관한 것이 4건이었다. 우선 전자와 관련해서는 지필 시험 위주의 객관식 평가 방식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 주를 이루었다.

- M1: 지필형 객관식 위주의 시험이 변화해야 함.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역량 중심의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학 입시의 비중이 최소화되거나 현행과 같은 비중을 유지하는 경우라면 서술형, 수행형 평가의 도입이 반드시 있어야 함.
- N1: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지향하는 핵심 역량의 경우에도, 기실 논리적으로 실제적으로 기존 국어 교과와 지향 혹은 내용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역량을 온전히 평가할 수 있는 평가 체계가 뒷받침되지 못할 경우, 역량 중심의 교육은 공허한 외침에 그칠 수 있다.
- O1: 선다형 중심, 이해 영역 중심의 평가로는 역량 기반 교육과정에서 의도하는 고등 수준의 역량에 접근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교사 중심의, 다면적인, 이해 영역과 표현 영역이 균형을 이루는 평가 체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그러한 평가에 대한 교사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C1: 언어 능력은 지필고사만으로 측정되기 어려운 복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만큼, 언어 능력의 다면적 특질을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 도구를 개발하고, 이를 정교화하는 작업을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학교 수업 중심의 평가, 교사의 평가권 확대와 같은 제도적 차원의 개선 방안도 다음과 같이 제시되었다.

- J4: 중등교육에서 평가는 수업 방식까지 바꾸는 역할을 한다. 수행평가, 학생 체험 중심 평가, 학교 수업 중심 평가를 안착시키는 것이 중등학교 교육을 바



꾸는 일이 될 것이다. 수능 평가 방식의 변화까지 내포하고 있지만, 학교 수업 중심, 학교 교사의 평가권 확대라는 점에 초점을 두는 변화가 필요하다.

둘째, 평가와 관련하여 대학 입시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대부분의 의견은 초·중·등 교육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현행 대학 입시 제도의 폐해에 대한 것이었다.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강한 어조로 언급하였지만 구체적인 개선 방안보다 심도 있는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P2: 우리나라의 모든 교육은 대학 입시에 맞추어져 있다. 교육과정을 백번 개정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다. 2030년의 교육을 논의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평가 체제를 바꾸지 않는다면, 2030년 교육을 말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생각이 든다. (중략) 대학수학능력시험만을 두어서는 안 된다. 고교 졸업 후 취업을 원하는 학생은 굳이 이 시험이 필요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직업 진로 선택 과목 이수 → 직업 능력 시험, 대학 진로 선택 과목 이수 →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이원화하는 평가 체제를 수립하는 것이 적절할지도 모른다.
- J2: 영역 간 융합이나 교과 융합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토대는 평가의 변화이다. 현재의 입시 평가 체계가 국어과 교육의 평가와 다른 방향으로 양립하는 한, 현실적 의미에서 미래 사회가 목표로 하는 인재의 양성은 쉽지 않다. 따라서 국어과 교육의 토대를 이룰 수 있는 평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국어과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V. 결론 및 제언

미래 교육이 이 시대의 중요한 화두이기는 하나 그동안의 논의는 대체로 일반교육학 분야가 주도해 왔으며, 교과는 그 틀 속에서 수동적인 적용의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았다. 이 연구는 그러한 틀에서 벗어나 국어과의 시선에서 미래 사회를 예측하고 국어과의 고유한 성격과 역할에 비추어 미래 교육의 방향을 제안해 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아울러 이러한 연구를 통해 미래 교육이라는 주제에 대해서도 향후 개별 교과로부터 출발하여 상향식 문제해결 모델을 더 적극적으로 제안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어교육 전문가 30인으로부터 90개의 주제를 수렴하여 분석한 결과, 미래 국어교육을 대비하여 국어과 내에서 주도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부분과 전체 교육 시스템 하에서 교육학 일반 및 타 교과와 적극적인 공조가 필요한 부분이 동시에 발견되었다. 우선 후자의 예로 임용시험 개선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이는 국어 교과 내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쉽지 않은 성격의 문제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논의가 결코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우선 한정된 범위 내에서나마 국어과 내에서 해결 가능한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찾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예를 들어 현행 임용시험 제도 내에서 국어과 문항에 대한 개선 방안 탐색), 그리고 문제의식을 교과 내에서 주도적으로 생성하여 외부 또는 상향 확산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한편, 국어과 내에서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로 제시된 것 중에는 교육과정의 영역 설정 문제, 교원양성기관의 필수전공 과목 지정과 같이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으나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것도 있다. ‘타 교과와 융합을 시도하기 전에 국어과 내부 영역 간 공조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공조의 방향은 학습자의 역량 신장이다.’(P1)라고 밝힌 전문가의 말처럼 급변할 미래 사회를 대비하여 이제는 문제해결의 기본 전제를 학습자의 역량 신장에 두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논의를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다.

교육과정의 분권화와 수시 개정의 환경 하에서 이제는 모든 교과가 동시에 교육과정 일체를 개편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개별 교과의 성격과 목표에 맞게 미래 교육을 구상하고 그 일정에 맞추어 교과별로 교육과정을 주체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식도 검토해 볼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이를 가능하

도록 만들고 더 나은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국어교육 학계 내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널리 고르게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는 주체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교육과정본부에 독립성이 충분히 보장된 각 교과 교육과정 연구팀을 운영’(K2)하자는 한 전문가의 의견도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는 안이라고 판단된다.

이 연구는 미래 국어교육을 대비하여 국어교육 전문가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제들을 찾아내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의견 수렴 결과 오랜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가 있는가 하면, 상대적 중요도는 높지 않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쉽게 합의를 거쳐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문제도 있다고 판단된다. 후속 연구를 통해서는 이 연구에서 부각된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방식이나 절차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또 각각의 과제에 집중하여 문제해결 방안을 제안하는 연구들도 많아지기를 기대한다.

\* 본 논문은 2017. 8. 15. 투고되었으며, 2017. 8. 22. 심사가 시작되어 2017. 9. 11. 심사가 종료되었음.

## 참고문헌

- 가은아(2014), 「핵심 역량 기반 국어과 교육과정의 구상」, 『작문 연구』 20, 37-72, 한국작문학회.
- 교육인적자원부(2007), 『국어과 교육과정』(교육자원부 고시 제 2007-79호 [별책051]), 교육인적자원부.
- 김창원(2009), 「국어 교과서의 정당성과 정체성에 대한 회의」, 『한국초등국어교육』 40, 71-96,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 김호석(2005), 「지구적 환경변화와 지속가능한 발전: 21세기 국내외 여건에 부합하는 에너지부문 구축 방안」, 『과학기술정책』 15(4), 1-18,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노명완(2015), 「미래사회의 요구와 국어교육」, 『새국어교육』 104, 93-132, 한국국어교육학회.
-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2007), 『(학습사회 실현을 위한)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 교육비전 2030』(RR 2010-08),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
- 박영민(2014), 「미래핵심역량과 중등 작문 교육」, 『한국작문학회』 20, 109-133, 한국작문학회.
- 박재윤·이정미·김택형·노석준·박남기·박찬주·신현석·염지숙·이연승·지진희·채재은(2010), 『미래 교육비전 연구』(RR 2010-08), 한국교육개발원.
- 박재현(2015), 「미래사회의 요구와 화법역량」, 『새국어교육』 104, 173-200, 한국국어교육학회.
- 서영진(2015), 「역량 기반 교육과정에서 국어 능력과 핵심 역량의 관계」, 『국어교육학연구』 50(1), 273-305, 국어교육학회.
- 이근호·곽영순·이승미·최정순(2012), 『미래 사회 대비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국가 교육과정 구상』(RRC 2012-4),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혜영·강영혜·권기석·김지하·박병영·정미경(2011), 『2020 교육환경 전망과 정책적 대응 방안』(OR 2011-03-2.), 한국교육개발원.
- 임철성(2011), 「국어과 교육과정의 현실과 지향: 다시 ‘통합’을 논하며」, 『국어교과교육연구』 18, 7-38, 국어교과교육학회.
- 정용인(2017.1.21.), 「2017년 인구절벽보고서 “한국 지방 40%는 이미 붕괴되었다」, 『한겨레신문』, 한겨레신문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1211738001](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1211738001).
- 정현선·박유신·전경란·박한철(2015), 『미디어 문해력(Media Literacy) 향상을 위한 교실수업 개선 방안 연구』(교육부 2015-12), 교육부.
- 정현선·김아미·박유신·장은주·길호현(2016), 『초중등 교과서의 미디어 리터러시 단위 개발 연구』(교육부 2016-6), 교육부.
- 정혜승(2014), 「스마트 교육 시대 국어과 교육과정의 방향: 언어와 의사소통의 인간 존중과 협력의 원리에 근거하여」, 『국어교육학연구』 49(1), 5-49, 국어교육학회.
- 주형미·최정순·유창완·김종윤·임희준·주미경(2016), 『미래 사회 대비 교육과정, 교수학습, 교육평가 비전 연구(1): 초·중등학교 교과 교육의 방향』(RRI 2016-10), 한국교육과정평

가원.

최상덕·김진영·반상진·이강주·이승정·최현영(2011), 『21세기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의 미래전략 연구』(RR2011-01), 한국교육개발원.

허재준(2017), 「4차 산업혁명이 일자리에 미치는 변화와 대응」, 『월간 노동리뷰』 3월호, 150, 62-71, 한국노동연구원.

OECD (2017), A Brief Introduction to Education 2030. Retrieved from <http://www.oecd.org/edu/school/education-2030.htm>.

Partnership for 21st Century Learning (P21) (2015), *P21 Framework definitions*. Retrieved from: [http://www.p21.org/storage/documents/docs/P21\\_Framework\\_Definitions\\_New\\_Logo\\_2015.pdf](http://www.p21.org/storage/documents/docs/P21_Framework_Definitions_New_Logo_2015.pdf)

Scott, C. L. (2015), The futures of learning 1: Why must learning content and methods change in the 21st century? *UNESCO Education Research and Foresight* [ERF Working Papers Series, No. 13], Paris: UNESCO.

World Economic Forum (2015), *New Vision for education: Unlocking the potential of technology*. Geneva, Switzerland: World Economic Forum, Retrieved from [http://www3.weforum.org/docs/WEFUSA\\_NewVisionforEducation\\_Report2015.pdf](http://www3.weforum.org/docs/WEFUSA_NewVisionforEducation_Report2015.pdf)

World Economic Forum (2016), *The future of jobs: Employment, skills and workforce strategy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Geneva, Switzerland: World Economic Forum. Retrieved from [http://www3.weforum.org/docs/WEF\\_Future\\_of\\_Jobs.pdf](http://www3.weforum.org/docs/WEF_Future_of_Jobs.pdf)

## 2030년 미래 국어과 교육의 방향 탐색

김종윤·박재현·옥현진

미래 사회를 대비한 교육 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2030년을 대비한 국어과 교육의 주요 과제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그 방안으로 국어교육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이메일 서면조사를 실시하였다. 각 전문가는 2030년 대비 국어과 교육에서 가장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세 가지씩 작성하여 회신하였으며, 연구자들은 공동 작업을 통해 응답 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전문가 의견은 다음의 다섯 가지로 수렴되었다. 첫째 국어 교육과정은 미래 가치를 담아낼 수 있어야 하며, 영역 통합적으로 변해야 한다. 둘째, 교사 역량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선발제도와 양성 과정에 변화가 필요하다. 셋째, 교과서 사용에 대해 보다 유연한 관점과 자세가 필요하며 교과서 개발 및 검정 체제의 경직성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넷째, 실제적 수업, 학생 존중 수업, 역량 강화 수업으로 국어과 교수·학습이 변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평가와 대학 입시제도 모두 실제적 국어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미래 사회에 더 나은 국어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과 연구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핵심어** 미래교육, 미래 국어교육, 교사교육, 교육과정, 교과서, 교수학습, 교육평가

## ABSTRACT

### Exploring the Direction of Korean Education in the 2030s

Kim Jongyun · Park Jaehyun · Ok Hyounjin

This study explores critical issues to be resolved in Korean education in the 2030s through an email questionnaire that was distributed to 30 Korean education experts. Their responses were analyzed and then categorized into five matters to be addressed: first, the Korean education curriculum must maintain its own values and consider integration among the domains; second, teacher education and teacher placement tests should be revised; third, the current textbook authorization system should be more flexible; fourth, teaching and learning in Korean education should be more authentic, student-centered, and competency-based; finally, the current assessment system—including classroom-based assessment and college entrance tests—should be revised in order to assess student competency. Based on these results, this work will discuss the future direction and suggestions for the education system.

**KEYWORDS** Future Education, Future Korean Education, Teacher Education, Curriculum, Textbook, Teaching and Learning, Assessment